

---

## 토론

**다케우치 :** 부조리한 죽음 앞에서 어떻게 자신의 생사를 위치 지을 것인가 하는 이토 선생님의 발표와, 사자·망자를 추도하는 전통적인 문화 양식이 어떻게 변천해왔는가 하는 한영규 선생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분께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탁 :** 사회자가 코멘트에서 인간의 죽음은 부조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의 사생학이든 한국의 생사학이든 죽음의 질을 높이고 그에 관한 연구를 하는, 또 교육을 하는, 또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죽음을 부조리로 표현한다는 것에 저는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죽음을 부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연구하고 죽음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전문가인데 이런 표현이 제 입장에서는 조금 어색합니다. 죽음이 부조리라는 표현보다 오히려 숙명이나 운명이라고 표현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따라서 부조리라는 표현을 어떤 의도로 썼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토 :** 감사합니다. 저도 발표 중에 부조리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도 다소 위화감을 느낀 점이 없지 않습니다. 단, 나라야마 참례에 관해서는 嫉捨에 의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소중하게 길러왔던 자식이나 손자에 의해 버려진다는 점에서, 그런 형태의 죽음이라면 역시 본인에게는 부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부조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이 모두 부조리인가 했을 때는, 분명 그렇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부조리라고 부르는 것과는 다른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인정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지금 말씀하신 숙명, 운명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도 역시 납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즉 부조리라는 용어도 분명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숙명이나 운명이라

는 용어도 다른 측면에서 이해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가능한 한 순수하게 죽음을 보고 인정하는 것도 연구자에게는 필요한 것이겠지만, 먼저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또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는 작업이 연구자의 중요한 작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케우치 :** 저도 한 마디만. 저나 이토선생이 사용하는 부조리라는 말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또는 불여의(不如意), 우리들의 합리적인 뭔가를 초월해 있음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오진탁 :** 한국어와 일본어의 어감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또 뉘앙스의 차이도 있겠지요. 제 생각에는 일반 사람들은 죽음을 부정적인 식으로 이해하는데 우리는 전문가들로서 부정적인 인식을 쓰거나 그런 느낌을 주기보다는 최소한 중립적인 혹은 긍정적인 용어를 쓰는 그러한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케우치 :** 반론은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종합 토론 때 말씀 드리지요.

**최일범 :** constellation 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오린처럼 인생이라는 것이 성과를 보듯이 전체적으로 보여진다고 한다면,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만약 그러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생각 하시는지요.

**이토 :** 인생이 성과처럼 보인다는 것은, 오사카 대학에서 임상철학을 연구하시는 鷺田清一(와시다 기요가즈) 교수가 『老いの空白』(늙음의 공백)이라는 책에서 전혀 다른 문맥에서 말씀하신 것에서 힌트를 얻은 것인데, 와시다 교수에 의하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기억이 아주 애매해져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기억이 시간 순서대로 직선처럼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어

---

떤 장면이 한 장의 그림처럼 불쑥 떠오를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하였나 하는 것이 보여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것처럼 인생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정연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무언가 하나라도 좋으니까, 자신이 아 내 인생은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납득이 될 만한 것이 떠오른다면, 그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한 장의 그림처럼 만들어져 그것에 의하여 편안함을 얻으면서 죽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가지고 죽음을 초월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한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이 무엇이었는지, 자신이 받아들이고 납득하는 것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은 아닐런지요. 그리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인식하지 않아도 이미 와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케우치 :** 한영규 선생님께도 아직 질문이 더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시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제 3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고, 종합 토론에서 질문들 해주시길 바랍니다.